



Wade Weems 변호사, South China Morning Post에서 틱톡(TikTok)과 관련 지속중인 미·중 갈등을 논하다

2021 01 4

출판물: *South China Morning Post*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기술 시장에서는 2021년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브레 & 김의 상하이 지사 Wade Weems 변호사는 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속될 갈등 중 하나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 앱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해당 앱을 12월 4일까지 처분하라는 미국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몇몇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틱톡의 미국 내 운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금지 조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Wade Weems 변호사는 미국이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건과 해당 이슈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